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7 December_Vol.179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Cover story

더 나아진 모습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의 마음으로
2018년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 톨스토이

한 해의 끝을 바라보는 지금,
2017년을 잠시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행복했던 일, 힘들었던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여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삼성KPMG와 함께 2017년도 행복했기를 바라며,
희망의 마음으로 2018년을 기다립니다!

Contents

December 2017 Vol.179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2017 Top News**
2017 삼성KPMG Top News
- 06 **Team Story**
삼성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 08 **Client+**
포스메이트
- 10 **Market Reader**
RPA 도입과 금융 서비스의 혁신
- 12 **Expert's Advice**
내년에 시행될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어떤 준비 필요할까?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 16 **아듀 2017**
삼성인이 추억하고 싶은
'가장 행복했던 2017년의 순간'은?
- 18 **인재양성소**
신임 파트너가 느끼고 돌아온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
- 20 **KPMG Tour**
이재원 Associate가 전하는 여수 여행기
- 22 **Culture & Etiquette**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의 문화와 에티켓
- 24 **KPMG Story**
삼성KPMG가 만들어 온 2017 KPMG Story!
- 26 **Samjong News**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017 삼성KPMG Top News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향한
2017년의 발자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다.
삼성KPMG의 2017년은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달성을 위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온 한 해였다. 1년 간 있었던 삼성KPMG의
주요 뉴스를 되새겨보고, 희망찬 2018년을 기대해본다.

01

해외연수 등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강화

삼성KPMG는 전 임직원에게 EF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자를 선정해 해외연수를 시행했다. 또한, Global Elite Program 성적 우수자로 선정된 삼성인에게 영국 런던으로 2주간의 해외연수를, 본부장 추천으로 선정된 우수 인재들에게는 캐나다 밴쿠버로 연수를, S.Manager 승진자 전원에게 영국 런던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해 영어학습은 물론 자유여행의 시간을 제공했다.



02

사무공간 확대 및 휴게 공간 추가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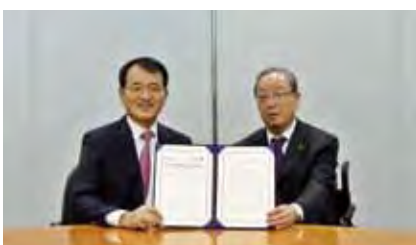
지난 7월 삼성KPMG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새로운 사무공간 및 별 & 강 휴게 라운지를 오픈했다. 새롭게 마련된 사무공간은 강남파이낸스센터 29층이며, 임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9층, 10층, 11층, 27층에 이어 추가 확장하게 됐다. 또한 임직원 휴게공간 별 라운지가 29층에, 강 라운지가 11층에 오픈됐다. 이로써 삼성KPMG는 별, 하늘, 강, 바다, 호수, 숲 라운지 총 6곳에 임직원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03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초석 다져

삼성KPMG는 지난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삼성KPMG는 2018년 2월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인쇄와 카페, 시각장애인 건강보조 서비스 직무로 총 18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명 공모를 진행해, '파란행복'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04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한 'Toy-soap 만들기' 봉사 및 지역센터 아동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함 제작하여 기부하는 '사물함 만들기' 봉사 등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꿈-진로 및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꿈을 Dream Project', '희망의 집 고치기', '사랑의 밥상', '제과제빵 봉사', '연탄나눔', '김장봉사'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05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 2회 연속 우승! 최강자 입증

삼성KPMG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는 삼성KPMG,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이 참여하는 축구대회로 삼성KPMG는 예선전 1위로 결승에 진출해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2:0의 점수를 기록, 2년 연속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01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감사위원회 활성화 지원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는 회계 투명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업계 최초로 계간지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했다. 또한, '제3회 ACI 세미나' 및 '산업별 Peer Exchange', '핸드북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며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통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02

삼정KPMG, 한국 최고의 세무자문 실력 인정받아

삼정KPMG가 'Real Estate Survey(부동산 서베이)'에서 '2017 한국 최우수 세무자문 마켓리더'에 선정됐다. 기업들이 뽑은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 자문사로 3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부동산 세무자문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이전가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7 Asia Tax Awards'에서 올해의 이전가격 자문상을 수상하며 이전가격 분야에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았다.

03

삼정KPMG M&A 회계실사 및 재무자문 1위, 업계 최강자 입증

삼정KPMG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 집계한 기업 인수·합병(M&A) 회계자문 실적에서 2017년 1분기 1위를 기록, 이 기세를 이어 상반기에도 1위를 수성했다.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3분기 인수·합병(M&A) 실적에서는 회계자문과 재무자문, 두 분야 모두 선두에 오르며 M&A 업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04

2017 PCAOB Inspection 결과 'No Comments'

삼정KPMG는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인 PCAOB의 Inspection 결과 'No Comments'로 수감 완료하며 PCAOB Auditing Standards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으로서, 높은 감사 품질을 인정받았다. PCAOB는 국내 회계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2년마다 미국 상장회사의 감사법인에 대해 공동감리를 수행 중이며, 삼정KPMG는 3개 기업의 감사업무에 대해 'No Comments'를 받았다.

05

한국 여성 경제인 발전과 성장 위해 ... WCD 한국지부 적극 후원

삼정KPMG는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WCD)에 후원금 전달 및 교육 세미나, 총회 지원 등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펼치며, 한국 여성 경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WCD는 여성 경제인들의 글로벌 커뮤니티 조직으로 2016년 WCD 한국지부가 창립됐으며, 지난 10월에는 WCD 한국지부 창립 1주년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KPMG는 15년 넘게 WCD를 후원하며, 세계 여성 경제인들을 위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06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동주최 및 심사위원 참여

삼정KPMG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인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매일경제신문, 행정안전부와 4년 연속 공동주최했다. 특히, 민간·공공기관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공정한 심사로 중추적 업무를 수행했다.

07

최신 정보 및 인사이트 제공 위한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최신 정보 및 인사이트를 제공을 위해 'IFRS15 도입 대응전략 세미나', 'RPA 활용 방안 세미나' 등 총 30여 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TP 관세 세미나-베트남', 'IFRS15 세미나-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했다.



01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달성 위한 전략 선포

지난 4월 FY2017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 ‘Quality Performance’이라는 FY2017 전략을 수립했다. 인재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 정신을 기반으로 업계에 모범이 되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법인을 이뤄갈 것을 다짐했다.



02

KPMG 리더들의 방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場

지난 7월 25~26일까지 KPMG International 존 비마이어 前 회장과 빌 토마스 회장이 방한했다. 이번 방한 동안 존 前 회장과 빌 회장은 삼성KPMG 임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KPMG Story를 강조하며 앞으로 KPMG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8월 3~4일까지 삼성KPMG 본사에서 KPMG ASPAC Board Meeting이 개최돼, ASPAC 지역의 KPMG Office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별 시장 현황 및 경영 이슈를 공유하고 Advisory와 Tax, 등 Function별 현안을 검토하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03

기업의 세계화 위한 GKP Network 확대

삼성KPMG는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GKP Network를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에 설립한 베트남 하노이 Korea Desk를 비롯하여, 2018년에는 인도 뱅갈루루,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Korea Desk를 설립하여, 더 많은 한국 기업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로 6회째 개최한 ‘GKP(Global Korea Practice) 컨퍼런스’로 최신 이슈에 따른 한국 기업의 Globalization 전략 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힘썼다.



04

Big4 중 최다 회계사 채용 및 역대 최다 법인 파트너 선임

삼성KPMG는 3년 연속 Big4 중 최다 인원인 343명의 신입회계사를 채용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에 힘써왔다. 특히, 2017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에서 1년 차 기본실무 4명, 2년 차 외감실무에서 4명, 총 8명이 수상함으로써 Big4 중 가장 많은 성적우수자를 배출했다.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바탕으로 내부 24명 및 외부 4명의 파트너를 영입했으며, 이는 삼성KPMG 역대 최다 파트너 선임이다.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튼튼한 파트너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2016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한 대책으로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삼정KPMG는 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제 역할 위한 재정비 작업 필요해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수준의 인증에 있어서는, 기업의 관심과 외부감사인의 관심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과 오류의 위험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하도록 변경한 것도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외감법 개정 및 회계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최근 급변한 사업환경과 내부 시

스템의 변경을 반영하고, 새로이 개정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평가와 통제위험의 재설정 그리고 사전적 평가를 통한 미비점의 보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수의 경험과 실력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지난 2016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감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도 있었지만 기업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향상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2017년 7월부터 삼정KPMG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해 감사수준의 인증을 하는 US SEC 고객에 대한 내부통제 감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형식적이고 새로운 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양한 실패 원인을 분석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중요한 통제위험을 파악하여 내부통제체계를 재구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감사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업무 내용의 전문성으로 인해 내부통제의 설계와 테스트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PCAOB Inspection 'No Comments' 품질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기여할 것

삼정KPMG는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등을 포함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US SEC 상장 고객을 감사하고 있고 또한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Inspection을 통해 내부통제 감사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삼정KPMG는 최근 PCAOB의 Inspection 결과 'No Comments'로 수감함으로써 높은 감사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감독 당국의 엄격한 내부통제 규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아직까지 '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 외감법의 개정에 따른 감사수준의 인증,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주주총회 직접보고 및 모범규준의 개정에 따라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고도화해야 하는 필수 과제이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정과 오류 예방, 적발 등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많은 기업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외에도 삼정KPMG는 구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정비하여, 삼정KPMG 내부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의 최고 장점은?

“삼정KPMG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미국 PCAOB 감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풍부한 감사경험, 전산감사업무 전문성,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조직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원들의 경험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그리고 외부감사 환경에 노출된 고객들의 재무보고 리스크 관리 및 관련 통제의 구축, 운영 및 평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상현 상무

Tel. 02-2112-0387 / E-mail. sanghyunhan@kr.kpmg.com

“다년간의 PCAOB Inspection 및 US SOX 감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삼정KPMG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향후 대한민국 상장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OSO 2013에서 강조하는 Entity Level Control부터 IT Control까지 감사본부(LOB), 내부감사본부(AFR), IT 감사본부(DPP-IRM)에서 파견된 내부통제의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대내적으로는 내부통제 전문가를 육성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고객의 변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멤버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원 상무

Tel. 02-2112-6985 / E-mail. giwonhan@kr.kpmg.com

“기업의 영업 및 생산, 자금 등의 프로세스는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혈관과 같으며, 혈관이 몸속 구석구석 골고루 흘러져 흐름에 따라 인간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혈관과 같은 프로세스가 막힘 없이 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로, 기업의 회계 오류와 부정을 예방 및 적시 적발이 가능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영진 등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시켜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경험을 보유한 인적 자원은 한정적이며, 삼정KPMG는 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의 고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이동영 이사

Tel. 02-2112-0896 / E-mail. dongyounglee@kr.kpmg.com



‘2017 부동산 산업의 날’에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 포스메이트 박세연 대표이사

자관리를 넘어 새로운 자산가치를 발견하다! Total Service Provider, 포스메이트

posmate

1990년 첫걸음을 땀 포스메이트는 포스코그룹의 종합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고객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객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 안전성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FM(Facility Management) 서비스로 전국 각지의 오피스, 연구소, 플랜트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자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 Life-Cycle 관점에서 빌딩 생애 단계별 컨설팅, 입·퇴거 및 임대차관리, 매입·매각 등 One-Stop 부동산 서비스로 건물주는 물론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스메이트는 남도 명문 고품격 골프클럽인 승주컨트리클럽과 서울, 수도권에서 가까운 파주 J-Public 골프장 운영 등 고객 감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FM 기술의 혁신으로 트렌드를 앞서 나간다

포스메이트는 국내 최초 ISO50001 인증으로 검증된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발 및 한국에너지공단 BETC(Building Energy Total Care) 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 최적 효율의 설비운전을 위한 연구와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환경 Solution 개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EMS는 빌딩 내 각종 동력설비와 시스템 에너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설비별 낭비 요인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빌딩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적용 빌딩들은 5년 평균 4%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빌딩 공조용 플라스마 집진필터 장치를 전문회사와 손잡고 연구, 개발하여 공동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제 10-1577567호 : 플라스마 집진 및 공기살균장치) 이는 기존 필터로 포집하지 못하는 직경 2.5 μ m 초미세먼지 비롯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장치가 설치된 포스코센터는 업계 최초로 오피스 빌딩 실내 공기 질 인증을 취득했다. 이와 같은 기술중심의 지속적인 품질경영 활동으로 2016년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Global Market에 도전장을 내밀다

포스메이트는 선진형 빌딩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국 상하이 루자쭈이 플라자, 베트남 다이아몬드 플라자 등 해외에서도 빌딩 관리 기



1. 포스메이트가 관리 중인 포스코센터는 업계 최초로 오피스 빌딩 실내 공기 질 인증을 취득했다 2. 남도명문 고품격 골프클럽 승주컨트리클럽

술컨설팅 역량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해외 기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경 왕징(北京 望京) 및 상해 첸탄(上海 前滩) 신도시 개발지역의 건물관리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물관리 Joint Venture 설립 참여를 통해 점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골프장을 넘어 골프문화를 만들어 가다

포스메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승주컨트리클럽은 전남 순천에 위치한 27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여수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천만과 다도해가 내려다보이는 64만 평 대자연 위에 남해바다와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고객에게 환상적인 라운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넓은 페어웨이와 전략적 플레이를 요구하는 코스로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받아 2014년 한국상품학회 주관 대한민국상품대상 레저부문을 수상했으며, 2014~2015년에 걸쳐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6홀 파주 J-Public 골프장은 정규홀 수준의 난이도로 설계된 페어웨이를 갖췄으며 최적의 조명시설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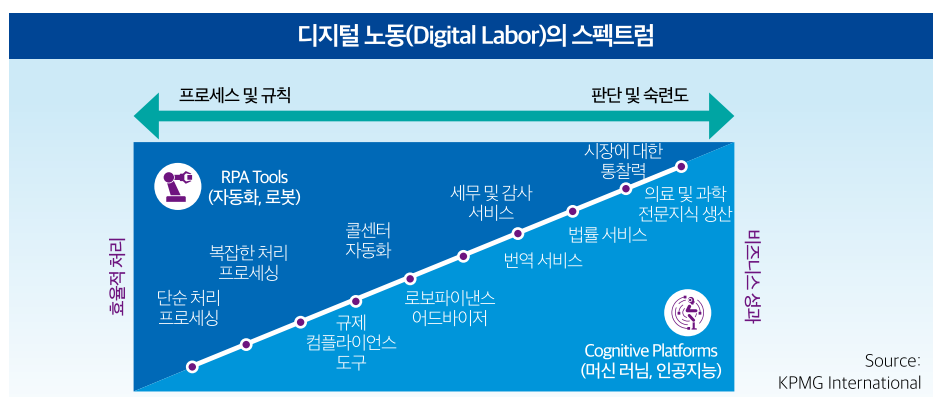
지난 23년간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야생화처럼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포스메이트의 변하지 않는 원칙인 고객 최우선이라는 절대 명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이라는 비전의 달성도 결국 고객가치 실현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포스메이트는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차세대 Smart FM을 통해 미래기업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3. 포스메이트 직원들의 관리 현장 모습 4. 승주컨트리클럽 내에 갖춰진 글래스핑장 5. 포스메이트가 관리하는 포스코타워송도

RPA 도입과 금융 서비스의 혁신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급속한 진전은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현상도 그중 하나이다. KPMG가 Harvey Nash와 전 세계 86개국, 4,498명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대상으로 공동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IT 예산 규모가 큰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노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노동이 점차 고도화되고,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RPA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RPA란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 중 표준화되어 있고, 규칙에 기반한 업무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된 '로보틱(Robotic)'은 물리적인 로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지적인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컴퓨터 프로세스를 말한다. 현재 RPA의 수준은 내부 업무(Back-office)처리의 자동화 정도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복잡하고 인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PA는 기술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는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로, 반복적인 거래나 업무를 규칙 기반(Rule-based)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는 고급 프로세스 자동화로, 축적된 데이터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RPA 솔루션의 정확도 및 기능 향상이 가능하며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3단계는 인지 자동화로, 빅데이터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 기법을 활용하여 스스로 업무 프로세스를 학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찾아 자동화한다.

기업이 RPA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효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정성이 강화된다. 둘째, 정보 기입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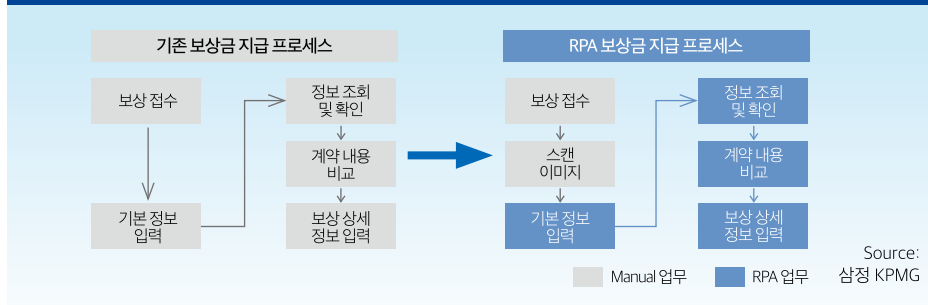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노동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조의 영역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다면, 서비스 영역에서는 로봇틱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도입하고 있다. 향후 기업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RPA에 대해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함께 RPA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도입 효과와 그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최소화시켜 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된다. 셋째, 기업은 저부가가치 업무 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보유 자원을 고부가가치 업무 및 차별적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집중 투입할 수 있다. 넷째, 무인 사무처리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산업, RPA 도입에 박차를 가하다

해외 주요 금융기관도 RPA를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인 골드만 삭스, 스위스의 대표적인 보험사인 취리히 보험그룹, 호주의 대형 은행인 커먼웰스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RPA 도입을 통해 관리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업무상 과실을 대폭 감소시키고,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도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RPA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RPA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RPA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도 RP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드사, 대형 증권사 등에서 향후 RPA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 관련 RPA 프로세스 개념도



성공적인 RPA 도입 위해 기업의 니즈부터 파악해야

기업이 성공적으로 RPA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니즈(Needs)와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RPA 도입 전에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RPA로 대체할 것인지, 어떤 RPA 솔루션이 기업에 가장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사적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RPA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 속도 개선, 인건비 절감 등 정량적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 내부적으로 RPA 도입에 대한 거부감과 조직원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력 대체 및 재교육 문제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PA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안정성

-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지
- 컴플라이언스 관련 인적 오류 예방
- 추가적인 인력 없이 정보보호 및 거버넌스 확보



정확성

- 입력 자동화를 통한 오류 예방
- 데이터 무결성의 일반화
- 재작업 필요성 감소



효율성

-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 가시성과 지속적인 개선 기대
- 고부가가치 활동에 가용 자원 집중
- 퇴사와 관련된 비용 및 리스크 감소



신속성

- 연중 무휴로 작업 수행 가능
- 컴퓨터가 더욱 높은 속련도를 보임
- 트랜잭션 볼륨 변경을 위해 신속한 스케일 Up/Down 가능



경제성

- 효과적인 인건비 절감
- 인건비와 매출액의 상관관계에서 자유로워짐
- 피크 타임에 추가적인 인력 투입 불필요

Source:
KPMG International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광용 선임연구원

Tel. 02-2112-6611

E-mail. kwangyonglee@kr.kpmg.com

내년에 시행될 재무보고전용 언어(XBRL), 어떤 준비 필요할까?

2018년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기관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삼정KPMG는 美 XBRL 1호
사업자로 선정되어 미국
상장 기업의 XBRL 작성을
돕고 있다. 삼정KPMG의
XBRL 전문가를 통해 XBRL
도입에 따른 기업들이 준비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삼정KPMG IT-Audit
한기원 상무

Q. XBRL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XBRL은 확장성표기언어(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기반으로 개발된 비즈니스 리포팅에 특화된 언어입니다. XBRL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와 정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나눠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이용자가 표준화된 '택사노미(표준분류체계·taxonomy)' 한 개를 가지면 수많은 기업의 공시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XBRL의 흥미로운 점은 개념과 표현을 분리한 것입니다. 표준화된 택사노미의 이름(태그)을 이용해 공시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정보의 명칭이 달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일 택사노미를 사용한 기업의 공시정보는 영어·한국어·일본어·중국어 등 얼마든지 자유롭게 실시간 변환이 가능합니다.

Q. XBRL을 활용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A.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BRL 정보를 2009년부터 축적했으며 분석 프로그램(CIRA)을 개발해 상장기업들의 분석 징후 예측 등 관리·감독 영역에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수한 모든 상장기업의 XBRL 정보를 SEC 웹사이트에 데이터로 전환·공개함에 따라 모든 정보이용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XBRL 데이터의 수집 단계를 지나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품질관리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Q. 내년 초 시행될 XBRL에 대한 준비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올해 초 SEC는 미국 내 상장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외국인 투자가까지 그 대상을 확장해 의무화했으며 유럽증권시장국(ESMA)도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유럽 증권 시장에 공개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본 XBRL을 발전시킨 형태의 인라인 XBRL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 재무공시 데이터의 표준화 흐름은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XBRL로 통일화되고 있으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에서 IFRS 택사노미와 미국 회계기준(US-GAAP) 택사노미를 관리하고 있고 XBRL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와 인증 등 연구를 XBRL-US 및 미국 공인회계사(AICPA)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각각 분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더이상 XBRL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한국 기업공시시장에 곧 닥쳐올 XBRL 제도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KASB)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택사노미를 유지·관리하고 금감원은 XBRL 공시정보를 입수·분석·공개하며 한국 XBRL 본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연구를 병행한다면 한국도 '기업정보의 디지털 강국'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회계 투명성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최근에 가장 핫(Hot)한 이슈를 모았던 시사 상식을 살펴보는 <맛있는 경제>. 이번 호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올테크와 펫티켓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올테크(YOL-TECH)

올테크는 '올로(You Only Live Once)'와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자는 '짤테크(짤돌이+재테크)'를 합친 말이다. 삶을 즐기면서도 소비는 합리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광고회사 이노션 윌드와이드는 '올테크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로족이 소비를 할 때 짤테크 소비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테크'를 하는 이들은 명품과 관련해서는 렌탈이나 중고 매매, 해외 직구에 관심을 보였고, 뷰티케어와 관련해서는 '절약'·'구입하다'·'아끼다'·'관리하다'·'투자'·'상담' 등을 즐겨 찾았다. 이처럼 충동적인 탕진을 넘어서 합리적 소비와 효율적 가치 실현을 꾀하는 올테크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이노션 윌드와이드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이다. 최근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목받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견 문화가 앞서 정착한 미국에서는 '개 물림 법'을 제정하고 일부 주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개 중에서 위험한 개는 안락사를 시키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 국어 사전

'세계 속 대한민국', 한국은 지금 어느 위치에? 정보통신은 선두, 여성 사회진출은 하위

지난 11월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통계집 '2017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1위(이하 2016년 기준), 인터넷 속도 1위, 전자정부지수 3위 등 정보통신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반면 여성의 사회진출 수준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주요 지표별 한국 순위

■ 상위 분야 ■ 하위 분야

ICT 발전지수

※ 2016년, 175개국 기준

1	한국	8.84
2	아이슬란드	8.83
3	덴마크	8.74
4	스위스	8.68
5	영국	8.5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2016년, OECD회원국

1	아이슬란드	86.3
2	스웨덴	80.2
3	스위스	79.5
...
31	한국	58.4

인터넷 속도

※ 2016년, 63개국

1	한국	26.1
2	아이슬란드	23.6
3	덴마크	22.8
4	스위스	21.9
5	영국	21.2

여성 이사회 임원 비율

※ 2017년, 46개국

1	노르웨이	39.3
2	프랑스	37.6
3	스웨덴	35.9
...
45	한국	2.4

전자정부지수

※ 2016년, 193개국

1	영국	0.9193
2	홍콩	0.9143
3	한국	0.8915
4	싱가포르	0.8828
5	핀란드	0.8817

여성 국회의원 비율

※ 2017년, 188개국

1	르완다	61.3
2	볼리비아	53.1
3	쿠바	48.9
...
118	한국	17.0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아듀 2017

인재양성소

KPMG Tour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Specialist를 존중하며 화합 이끄는 MCS2본부

삼성KPMG의 본부별 문화를 소개하는 <Culture Relay>에서는 MCS2본부를 만났다. 지난 4월 MCS2본부는 TE(Technology Enablement)팀과 MCS1 본부였던 FM(Financial Management)팀 그리고 새롭게 신설한 SOC(Strategic Operations Consulting)팀이 모여 100명에 이르는 본부로 거듭났다. 비 금융권의 디지털 전략에서부터 IT 구축까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화합을 이끄는 MCS2본부 문화 활동을 소개한다.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 'Office Day'! ★

인재 성장을 중시하는 MCS2본부는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번 모든 본부원이 모여 프로젝트 사례 및 팀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Office Day'를 진행 중이다. PPC Officer인 안순식 S.Manager는 "Office Day를 통해 Market에서 Issue가 되거나 전략적인 Consulting Service 상품 개발 또는 지식 Sharing이 필요한 중요 Project를 선별해 공유하고 있다. 진행 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가 프로젝트의 배경, 이슈, 해결 방안,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팀원들과의 대화로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아름 Manager는 "Office Day는 타사에서 직면한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중요한 시간이다. 특히, 고객별로 다양한 시각에 따른 요구사항 및 고객 간의 상충되는 요구사항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하며, 컨설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필문 Manager는 "사실, Project별로 본부원들끼리 떨어져 지내기에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운데, Office Day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소통할 수 있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며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니어들의 친목 모임으로 본부 소속감 UP! ★★

MCS2본부는 본부 내 주니어들 간의 소통 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서 타 본부원 간의 소통으로 협업을 이끌어 내는 '삼삼오오' 활동의 목적과 비슷하게, MCS2본부 내 주니어들이 한 달에 1~2회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람된 점, 또는 힘든 점을 나누고 위로와 조언을 통해 본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이란. 이상준 S.Consultant는 "다양한 본부원이 모여 프로젝트 형식으로 업무에 임하기에 협업을 위해서는 많은 본부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본부장님을 비롯해 파트너님들께서 주니어 친목 모임을 적극 지원해주셔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컨설턴트는 업무의 강도가 높은 편인데,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친목 활동이 본부원 간의 협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서로 의지하며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MCS2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MCS1본부의 주니어들과 함께 모여 '주니어 스터디 그룹'을 진행해 컨설팅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삼정인이 추억하고 싶은 '가장 행복했던 2017년의 순간'은?



설렘을 안고 시작한 2017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다. 2017년은 삼정인에게 어떤 한 해였을까? <Channel>에서는 삼정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 하고 싶은 2017년의 추억을 담은 사진과 에피소드를 응모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금부터 삼정인이 추억하고 싶은 2017년의 소중한 에피소드를 공유한다.



'우연한 만남이 준 최고의 선물'

올해 가장 기억 하고 싶은 사진으로 웨딩 사진을 선정했어요. 아마도 살아오면서 가장 예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제 옆에 함께 미소 짓는 예비신랑은 2017년 1월 초 추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입사 후 처음 경험한 기말감사와 함께 찾아온 짝꿍이에요. 회사 본사에서 야근한 후 동기와 함께 편의점에서 간식을 즐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짝꿍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결혼을하기로 했고 다시 겨울이 오는 12월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초, 열심히 일한 후 간식을 즐기며 짝꿍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고 싶어요. 이제 부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사진을 공유합니다. 축하해주세요!

CM 박소는 Associate

'결혼과 서른 살이 된 해, 무엇보다 2세가 생긴 특별한 해'

2017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른 살이 된 해이기도 하지만, 결혼에 성공한 해이기도 해요. 지난 5월에는 우리 부부의 보물인 '특공이'도 생겼습니다. 이제 곧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행복함은 감출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요. 삼정KPMG 가족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MCS1 민경호 S.Consultant

'쇼미더머니6 예선 출전! 도끼에게 나만의 랩을 들려준 날'

지난 5월, '쇼미더머니6' 1차 예선에 출전했어요. 연습 기간이 Busy Season이 끝난 후의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힙합을 외치며 랩을 하는 뜨거운 현장에 직접 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유명한 현역 래퍼들을 직접 보게 되니 기본이 좋았고, 대기석에서는 운이 좋게 '마이크로닷'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 차례가 되고 나니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고 눈앞에서 있는 건 심사위원 '도끼'. 예상대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도끼' 앞에서 30초 정도 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올해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Global Tax 김수현 Associate





'2017년 가장 큰 행복은 삼성KPMG 입사와 소중한 동기를 만난 것'



올해 행복한 순간은 입사와 동시에, 너무나 좋은 연수 조 동기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은 어디로 가고, 다들 어떻게 친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다른 본부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시간이 날 때는 만나서 수다를 떠는 지금이 너무 소중해요. 그 소중한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삼성 KPMG에 입사한 이후, 어디에서나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즐겁네요. 저 또한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래요.

ICE2 한호석 Associate



'공인회계사 합격과 첫 母子 여행을 떠난 행복의 순간들'

제가 기억하고 싶은 올해 소중한 사진은 삼성 KPMG 입사 3주 전에 엄마와 단둘이 첫 해외(대만)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올해는 정말 제게 뜻깊은 한 해였어요. 공인회계사 합격과 함께, 엄마의 첫 해외여행, 특히 母子 단둘만의 여행이라서 더욱 행복했어요.



IM2 이현수 Associate



'가족과 함께 기아타이거즈 우승을 만끽하던 순간!'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장을 다닐 때부터 전 기아타이거즈의 팬이었어요. 그때는 해태타이거즈 시절이었죠. 어릴 때부터 함께해온 기아타이거즈는 제 오랜 벗이자, 지친 일상에 힘을 주는 활력소 같은 존재예요. 그런 기아타이거즈가 올해 8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어요. 약 7개월의 대장정을 우승으로 마무리 지은 건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의 순간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꼽은 제 올해의 한 컷! 가족과 함께한 우승의 순간입니다.



Deal Advisory5 김양태 Manager

'손기정 마라톤 완주 메달을 거머쥔 짜릿한 행복'



제가 기억하고 싶은 올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손기정 폴 마라톤 완주 메달'을 거머쥔 순간이에요. 영하 -6°C의 기온에서 칼바람을 뚫고 4시간 동안 42.195km를 달린 끝에 손에 넣었기 때문에 올해에 얻은 것 중 가장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진 한 장에 그동안의 땀과 노력, 인내가 고스란히 들어 있기에 앞으로도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으로 남을 것 같네요.

IM4 고민구 Associate

'삼성KPMG에서 만난 우리의 결혼'

2017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어요. 저는 올해 9월 9일 결혼을 했는데요,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인생의 동반자는 같은 JP 본부의 동료예요. 한 본부 내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 서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축복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지금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많이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녀와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예쁘게 살겠다는 의미로 웨딩 사진을 <Channel>에 담고 싶습니다.



JP 김성욱 S.Senior

신임 파트너가 느끼고 돌아온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



전 세계 KPMG 신임 파트너들과 소통한 GNPC



조상현 상무 전 세계 KPMG 파트너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었어요.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일하는 분야도 다양하기에 '함께 모여 공감대를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한데, 막상 모이고 나니 제 기우에 불과했어요. KPMG 안에서 성장해왔다는 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진 상무 'KPMG는 전 세계 152개국 18만 9천 명의 전문가가 근무하는 Global Firm입니다.'라는 말을 매 세션마다 자주 이야기했는데, 이번 참석을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정말 거대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만 260명의 New Partner가 참석하는 등 Global 전체에서 약 450명 이상이 참석한 웅장한 행사가 Conference 기간 내내 이어졌어요.



박우성 상무 사실 2017 GNPC 행사 장소가 멕시코였어요. 하지만 멕시코 지진으로 인해, 행사를 코앞에 두고 급히 LA로 변경되어 체계적인 진행이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우려와 달리 LA에 도착해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행사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일정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랐어요.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신임 파트너들을 만났는데, 토론 주제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과 KPMG 오피스 문화 장단점들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던 것 같아요.

'KPMG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Relationship에 대해 생각해본 시간



박우성 상무 2017 GNPC의 첫 공식 일정으로 LA 다운타운의 Hot Place인 LA Live에서 열린 Welcome Reception과 숙소이자 행사 장소였던 호텔에서 열린 Class of 2017 Celebration Event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행사장, 축하 공연, 결정적으로 무제한 공급되는 주류와 양질의 음식 등 곳곳에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백 명의 신임 파트너들이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는 행사였기에, 오랜만에 업무적 고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흥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간이었어요.

지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미국 LA에서 '2017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이하 '2017 GNPC')가 열렸다. GNPC는 152개국 KPMG Member Firm의 신입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로, 삼정KPMG는 총 27명의 신입 파트너 가운데 22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참석한 신입 파트너 3명을 만나 GNPC를 통해 느끼고 돌아온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신기진 상무 저는 첫 번째 세션에서 진행한 KPMG 빌 토마스 회장의 'Relationship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빌 토마스 회장이 지금 자리에 오르기까지 쌓아왔던 고객, 동료, 선후배 등과의 Relationship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KPMG의 모든 파트너는 Relationship을 만들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빌 토마스 회장의 연설은 앞으로의 회사 생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조상현 상무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빌 토마스 회장의 연설이었어요. 무대 위에 설치된 커다란 3개의 스크린에 낯선 사람의 이름이 하나씩 띄워지고, 빌 회장이 그 이름과 관련된 짧은 이야기들을 이어갔어요. 도움을 받았거나,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동료, 친구, 가족, 고객의 이름들이었죠. 우리의 삶과 커리어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연설이었고, 향후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표도 생겼네요.

KPMG New leader가 느낀 우리의 KPMG Story



신기진 상무 KPMG Story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Junior 때부터 선배들에게 배워왔던 기본적인 것들이 잘 구조화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것들이지요. 당연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매사에 충실히 지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훌륭한 KPMG Story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번 GNPC를 통해 느낀 것은

KPMG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예요. 많은 후배들에게 KPMG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상현 상무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KPMG Global의 Tax 수장인 제인 맥코믹 대표가 Tax Advisor의 존재 이유를 멋지게 소개한 것이예요. 요약하자면, "Tax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세상에 필요한 많은 공공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 Tax Advisor는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돕고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찌 보면 새로운 것 없지만 Tax Advisor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정말 간결하고 멋진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의미를 잘 되새겨, Tax Advisor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겠다고 다시금 되새겼어요.



박우성 상무 KPMG Story 세션은 Real Story 공유에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가 모여 KPMG Story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저 역시 균형 잡힌 KPMG Story를 이뤄가도록 다양한 경험을 채우고, 또 공유하면 좋겠네요. 특히 행사 중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Think about why you're here today. You should be proud of your achievement. You deserve it." 입사 이래 먼 산 바라보듯 GNPC 행사 참석을 무심히 지나쳤는데, 빌 회장의 이 메시지에 수년간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법인 내에도 인정과 존중을 경험할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1. 조상현 상무(우측 하단)가 GNPC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신입 파트너와 함께 한 모습 2. 삼정KPMG 신입 파트너와 KPMG 빌 토마스 회장이 함께 스마일~! 3. KPMG 빌 토마스 회장과 박우성 상무의 Self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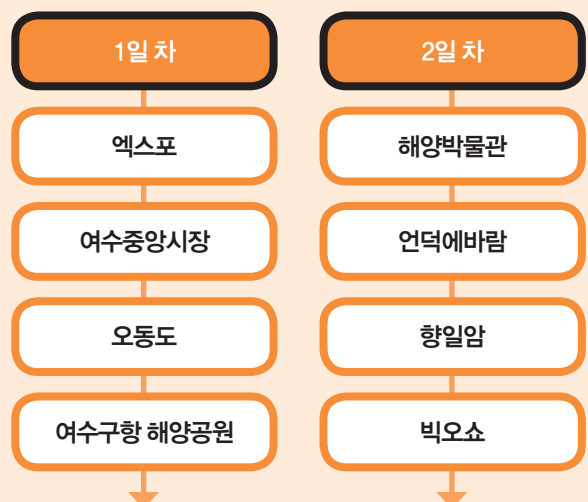
Domestic Tax1 이재원 Associate가 전하는 여수 여행기 ‘여수 밤바다~ 낭만이 가득한 여수로 함께 떠나요!’

멀리 해외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가끔은 주말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삶의 충분한 비타민이 된다. 이재원 Associate는 동기의 추천으로 지난 10월에 여수를 다녀왔다. 그가 즐기고 느낀 여수의 아름다운 매력에 함께 빠져보자.

해외만큼이나 아름다운 곳, 여수

지난 10월, 1박 2일로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미항도시 여수를 다녀왔다. 그간 <KPMG Tour>에 소개된 여행 장소 중엔 해외가 많았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여수 해의 유명지만큼이나 여수가 매력적이고, 삼정KPMG 가족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국내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수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풍광, 갯김치와 각종 해산물 등으로 유명한 남도음식의 고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 및 하멜표류기의 주인공 하멜의 흔적, 여수 엑스포박람회장과 빅오쇼 등 자연 풍광 및 전통 그리고 현대적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접근이 용이해졌기에, 긴 비행시간 등으로 해외여행이 꺼려진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그리고 여수에 대한 먹거리, 볼거리, 숙소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 여수에 가고 싶게 만들어 준 B&F2본부 유정애 Associate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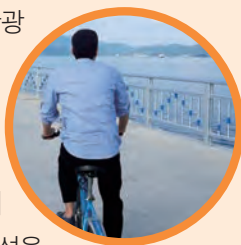
여수 여행코스



| 여수 불거리 TOP 3

① 아름다운 바다와 동백꽃이 있는 곳, '오동도'

여수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여수 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면 도착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1월부터 개화되어 3월에 절정을 이루는 섬을



가득 채운 동백꽃이 압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동도에는 동백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섬 전체에 거미줄처럼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에 적당하고 특히 섬 외곽을 따라 도는 산책로를 택하면 방파제를 따라서 섬 끝의 하얀 등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등대는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등대 위에 오르면 여수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동도는 생각보다 넓은 섬이기 때문에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오동도 입구에서 순환 열차를 운행하기도 하지만 탑승시간이 짧고 코스가 한정되어 있어 자전거를 렌트해서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②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돋이 관광명소 '향일암'

해돋이로 유명한 향일암

은 여수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40~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수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향일암 이외에 유명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여행 동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생략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매표소를 지나 30도가 넘는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고 좁은 바위문을 통과한 후 마주하는 뽕 뚫린 바다의 모습은 그곳까지 도달하는데 들었던 노력을 보상해 주기에 충분하다. 전망대에 오르면 과거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장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좌선하다 보면 누구라도 어떠한 깨달음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곳이다.

③ 화려한 해상 분수쇼, '빅오쇼'

여수 국제박람회장 빅오쇼(Big-O Show!) 공연장에서 열리는 해상 분수쇼이다. 보통 분수쇼라고 하면 지상에서 하늘로 뿜어져 오르는 분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빅오쇼의 분수쇼는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 Big-O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원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레이저, 불꽃, 홀로그램 등의 다양한 기법과 웅장한 음악이 결합된 분수 공연이 약 1시간 반가량에 걸쳐 펼쳐진다. 공연의 특성상 날이 어두워진 이후 밤 시간에 공연이 시작되며 시원한 여수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공연에 빠져들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공연이 끝나버린다. 공연 시 사용되는 배경음도 국악부터 클래식, 영화 OST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악들이 많아 공연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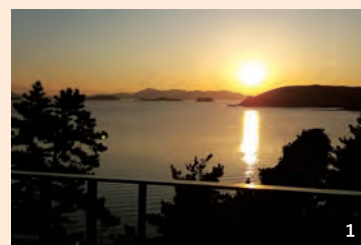
관람 시 팀이 있다면 공연 전 좌석을 예약할 때, 앞쪽 A~C열을 선택한다면 쇼 말미에 비눗방울 비가 내릴 때 손으로 비눗방울을 직접 만질 수 있다. 또한 공연장이 KTX역과 가깝기 때문에 KTX를 이용객들은 여행의 마지막 순서로 빅오쇼를 추천한다.

먹거리 추천!남도 음식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한정식'

'여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은 갯김치와 각종 젓갈, 다양한 해산물 요리 등이 있으며 이



음식들을 한번에 맛보는 방법으로 한정식을 추천한다. 한정식은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지만 전라도 지역의 한정식은 '남도 요리'라 불리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양념이 특색이다. 여수를 대표하는 한정식 집은 '다다한정식'과 '한일관' 두 곳으로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해산물 위주의 한정식이 푸짐하게 나와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단, 두 곳 모두 예약은 필수다.



1



2

1. 아름다운 여수의 저녁 노을
2. 화려한 해상 분수쇼, '빅오쇼'

이재원 Associate가 전하는 여수 여행 꿀 Tip

1. 여수랑: 서울에 '따릉이'가 생기기 이전부터 여수에는 '여수랑'이라는 자전거 대여 제도가 있었다. 가격은 '따릉이'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천원이며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오동도나 여수구청 해양공원 관광 시 이용하면 좋다.

2. 교통체증: 주말이나 관광시즌에 돌산대교 부근 및 오동도 출입도로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하다. 지도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고 여행동선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3. 화태대교: 흔히 여수하면 '돌산대교'가 유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향일암 가는 길에 보았던 '화태대교'가 더 기억에 남는다.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까지 무려 12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다리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하얀 교각이 너무 아름다웠다. 날씨가 좋다면 '언덕에바람-화태대교-향일암'을 코스로 하는 국도를 꼭 달려 볼 것을 추천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의 문화와 에티켓

크기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한국 서울의 면적보다 약간 크고, 서울 인구의 반 정도 되는 인구가 사는 도시 국가이다. 도시 국가라는 말은 도시 하나가 곧 나라임을 의미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의 문화와 에티켓을 정재욱 이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크기의 작은 땅이지만 세계 오일 허브이자 4대 외환시장으로 세계 경제의 아시아와 서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민족이 어울려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계 회사가 밀집하여 있는 레플스 지역에는 서양식 건물, 음식,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인들의 구성 또한 중국계가 70%를 비롯하여 기타 말레이계와 인도계 등이 국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받아왔던 지역이었던 만큼 영국의 억양, 비즈니스 에티켓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싱가포르 Korea Desk에서 생활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에티켓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인이예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중국 민족과도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인들에게 싱가포르와 중국을 동일시하는 언급은 매우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싱가포르에 와서 식사 중에 무심코 홍콩을 빗대어 어차피 모두 중국이 아니냐고 되물었다가 그중 한 명이 식사 테이블에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격앙된 어조로 “I am Singaporean”이라고 제게 얘기했던 상황이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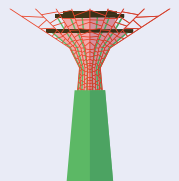
회의를 위해서 사전 예약은 필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영업 사원이라면, 고객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성과를 내기 전까지 계속 문 앞에 기다리거나 갑작스런 방문을 통해 고객과 간단히 차 한잔하는 것이 에티켓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

이것만은 꼭! 싱가포르 Etiquette Plus+

1 싱가포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먼저, 공공 장소에서 침을 뱉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단, 두 번째 걸리면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무단횡단할 경우,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을 경우, 쓰레기를 버릴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2 여러 민족이 사는 싱가포르이기에, 각 나라 음식에 따라 식사법이 다르니 주의하자. 중국 음식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고, 말레이시아와 인도 음식은 오른손으로 집어 먹는다. 또 태국 음식과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을 때는 큰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한다.



습니다. 반면에 싱가포르에서는 사전 약속 없이 찾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므로 절대 삼가야 할 매너입니다. 심지어는 KPMG 싱가포르 내부적인 모습만 보아도 매니저나 스태프들이 파트너를 보기 위해서는 각 비서와 일일이 시간을 예약해야 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아무리 마감 시한이 내일이라도 예약이 잡혀있지 않으면, 갑자기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언행은 절대 금지

싱가포르는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접국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저소득국가에서 많은 사람이 단순 노동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정착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은 매우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인도 국적의 택시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택시운전사가 수 차례 길을 잘못 들어서 일행 중 한 분이 그저 불평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해당 인도 기사가 인도인이 사는 지역으로 차를 옮기고 경찰을 불러서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찰 또한 이런 문제는 매우 민감해하기 때문에 인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 두면 더 좋은 싱가포르 에티켓

싱가포르에서는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이 있습니다. 먼저, 옥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제법 자유로운 편이나 위에 처마나 지붕이 있어서 막힌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는 법적



1. KPMG 싱가포르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2.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내려다본 시내 전경

으로 금지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컸을 씹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옥외에서 씹는 것은 벌금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취사 및 음료 마시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엇을 마시면서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열대과일인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애초에 소지하고 그 어떤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매우 큰 실례가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집회의 자유가 없으며, 사전신고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싱가포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촛불집회 재외국민 참가) 승인없이 함부로 공원에 모여서 쫓기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CONTACT US

싱가포르 KOREA DESK 정재욱 DIRECTOR

Tel. +6565085739 E-mail. jamesjung@kpmg.com.sg

Global Etiquette

3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과 만날 경우, 사례금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또,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도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글로벌 에티켓 1』
글 박동석, 출판사 꿈꾸는 꼬리연



싱가포르 Korea Desk

싱가포르 Korea Desk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또는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Audit, Tax 및 Advisory(회사설립, 장부기장, 경영자문 등)를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KPMG 싱가포르의 구성원 3,000여 명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Bridge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ring the KPMG Story to life...

삼정KPMG가 만들어 온 2017 KPMG Story!



2017 KPMG Story 주요 활동



나에게
KPMG Story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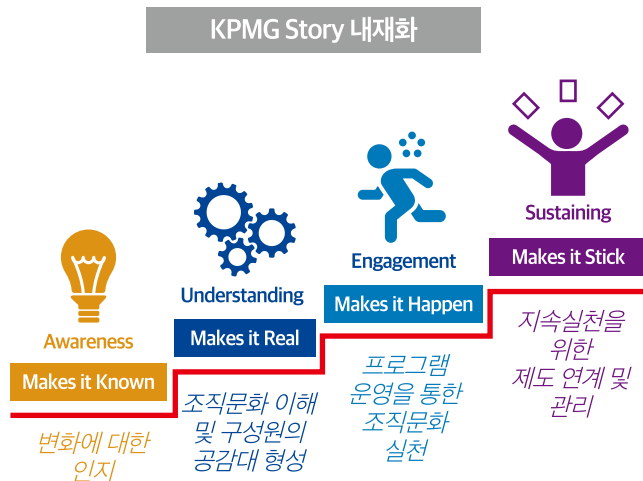


KPMG Story는 전 세계 189,000명의 KPMG 구성원을 하나로 이어주는 스토리로,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해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삼정KPMG는 2017년에도 다양한 KPMG Story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2017년 삼정KPMG의 KPMG Story 활동을 사진으로 살펴보고 2018년에도 이어질 KPMG Story의 여정을 기대해본다.



KPMG Story 내재화를 위한 'Clear Choice KPI' 수립

KPMG Story가 일상에서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Vision KPIs 수립을 위한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Clear Choice KPIs

- Align to global Clear Choice Vision**
(Local Vision으로서 The Clear Choice를 명확하게 명시)
- Personalize Clear Choice for each member firm**
(Vision 체계를 기반으로 삼정KPMG의 The Clear Choice 목표 구체화)
- Communicate the Vision**
(Clear Choice KPIs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Vision을 소통)

본부별 다양한 Story 내재화 활동

나에게 Purpose란 무엇인가?
MCS2



자유로운 대화를 이끄는 모임
IM3



꿈을 이루는
Do Dream
FS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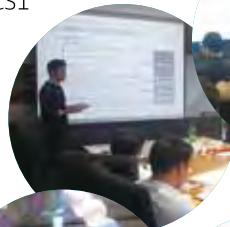


우리의 존재 이유,
Purpose Storytelling
Deal Advisory3



Purpose의 의미를 전하다
IM2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다
MCS1



Be the right Central
Central Services



KPMG Story를
업무 속에서 실천한다
B&F3



NEWS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

12월 6일,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위한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삼정KPMG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감사위원회를 위한 종합 실무지침서인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의미와 역할 정립, 법에서 요구되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권한, 책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Contact: ACI 리더 김유경 상무 youkyoungkim@kr.kpmg.com



‘2017 지속가능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삼정KPMG는 11월 22일 본사 교육장에서 ‘2017 지속가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KPMG 가치측정방법론(KPMG True Value)’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Contact: BCS-CCS 김성우 전무 sungwookim@kr.kpmg.com

‘2017 Annual APTRA & KPMG 세미나’ 서울에서 열려

지난 11월 28일, 삼정KPMG 본사에서 ‘2017 Annual APTRA & KPMG 세미나’가 열렸다. 이는 KPMG ASPAC에서 매년 APTRA(Asia Pacific Travel Retail Association) 협회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로 서울, 싱가포르, 상해, 홍콩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본 세미나에는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재산업에서의 혁신 기술, 여행객들의 구매 패턴, Traffic Data에 대한 리서치 결과 공유 및 e-commerce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11월 30일 ‘제4회 게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익인식기준(IFRS15)과 외감법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IFRS15 도입으로 인한 게임 IP 수익인식 시기 및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아이템 수익에 대한 수행의무 구분 등 주요 영향 및 개정된 외부감사 관련 법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 Contact: ICE2 염승훈 전무 syeom@kr.kpmg.com



‘제4회 Culture & Entertainment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11월 29일 ‘제4회 Culture & Entertainment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회계 및 세무 이슈사항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 Contact: ICE1 양승열 부대표 seungyeoulyang@kr.kpmg.com

삼정KPMG ITC본부,
관세평가 분야 관세청장 표창 수상

12월 1일 ‘2017년 관세평가연구용역 시상식’에서 삼정KPMG ITC본부가 관세청장 표창(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태주 상무는 “이번 수상은 이준, 김준호 관세사를 중심으로 3년 차 이하 팀원들이 약 3주간 개인 시간을 투자해 얻은 결과물로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기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분석해 관세청으로부터 삼정KPMG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말을 이웃과 따뜻하게! 한 해를 봉사로 마무리 하며 사랑 나눔 삼정KPMG!

삼정KPMG가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삼정KPMG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모여, 김장 및 연탄 나눔 등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3,440kg 김치 담가 430세대에 전해

지난 11월 4일, 삼정KPMG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동작·관악 대한 적십자 봉사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삼정KPMG 임직원과 가족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조별로 모여 미리 절인 배추에 양념을 하며 김장 김치 3,440kg을 담갔다. 정성스레 담근 김치는 동작·관악 봉사관에서 선정한 독거노인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430세대에 전달했다. 김장나눔 봉사에 참여한 ITC본부 홍수미 Consultant는 “사촌동생과 함께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김장이라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을 마무리 하고, 예쁘게 포장된 김치박스를 보니 뿌듯했다”며, “회사 동료들 지인들 그리고 대한 적십자 분들과 함께한 토요일 아침이 올해 중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 있던 날이었던 것 같다”고 봉사 소감을 전하며, 웃음지었다.



‘희망의 연탄 나눔’, 2,400장 직접 배달… 총 만장 후원

삼정KPMG는 11월 18일,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한 ‘희망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희망의 연탄 나눔’은 서울 지역의 저소득층 이웃에게 연탄을 나누며, 삼정인들의 손으로 직접 사랑을 배달하는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마을에 겨울철 연탄이 필요한 세대들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총 33명의 임직원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당 3.6kg 무게의 연탄을 5~6장씩 지게에 짊어지고, 홀몸어르신 가정까지 연탄 2,400장을 직접 배달하는 등 총 만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연탄 나눔에 참여한 한 삼정인은 “제가 직접 옮긴 연탄으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또, 연말을 봉사로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